

□ 第 1 次 資料蒐集草稿 시리즈(續 3) □

# 韓國齒科醫學史 概觀



資料 篇(24)

齒協歷史編纂委員會 提供

- ◇... 齒醫新報에 連載하던 此項을 1964年度分 부터 여기에 실기로...◇
- ◇...되었습니다. 이를 補充할 수 있는 資料나 寫眞을 서울特別市, ...◇
- ◇...釜山市, 各道 및 軍陣等齒科醫師會와 關係處에서 보내주시면...◇
- ◇...感謝하겠습니다. 끊임없는 指導鞭撻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1964년=

◆ 12월 3일 齒協서울특별시支部는 하오 7시~10시 會事務室에서 제 1회 定期理事會를 개최하였는데 決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 1회 臨時理事會회의록 낭독通過可決 ② 各部報告 ③ 학술강연회 12월 11일(金) 하오 7시 서울齒大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하되 회원각자에게 葉書로 통지하기로 可決 ④ 齒協諸會費納付 독촉공문을 각회원에게 발송하기로 可決 ⑤ 調査部에서 草案한 여론조사書案을 各理事들이 검토하여 12월 11일 학술강연회까지 持參하기로 可決 ⑥ 齒科材料금수關係문제를 參考로 하기위하여 齒材會社李適柱사장을 초청하여 意見을 들어보기로 可決 ⑦ 前任員에게 紀念品으로 <感謝狀>을 액자에 넣어주기로 可決.

◆ 12월 17일 齒協 서울특별시支部는 하오 7시~9시 20분 會事務室에서 제 2회 臨時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決議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제 1회 定期理事會회의록 낭독通過 可決 ② 조사

부 事業인 會員여론조사(양케트) 書案수정하여 通過可決 ③ 顧問추대件은 法律顧問으로 會鍾彪, 朴漢相 두사람을 추대하기로 하고 일반고문은 보류하기로 可決 ④ 資材件(國產세멘트 F.D.I 규격검정)은 齒協에 建議하여 齒協으로 하여금 F.D.I本部에 檢定の뢰토록 可決 ⑤ 出入記者會見은 年末을 期하여 개최할 것을 可決 ⑥ 齒科會報 출판물등록 認可신청件은 2,3회 續刊실적을 본후 認可申請하기로 可決 ⑦ 齒協공문 海外과건군인 慰問文 및 慰問品 수집의 件은 各會員에게 알리기로 可決 ⑧ 오존發生器추천공문을 各會員에게 직접 발송(發送料는 該當商社부담)키로 可決.

◆ 6월 9일 齒協釜山市支部는 금년도 제19회 口腔保健週間행사도 例年처럼 釜山市와 釜山支部공동주최로 다케로운 計劃을 수립하였다. 특히 구강보건啓蒙宣傳에 重點을 두고 그 PR에 全力을 다하였다.

- ① 국민학교 兒童에 대하여 구강보건 啓蒙을 위한 講

演등을 實施하였고

② 港都부산의 2대신문을 통하여 啓蒙記事를 대대적으로 보도케 하였으며

③ 부산, 문화兩放送局을 통하여 週間中 座談會, 講演, 主婦時間, 醫學時間, 라디오부리지, 구강심사사항現地답사등 중요한 프로그램을 매일같이 방송케 하였다.

④ 釜山市의 협조로 시내각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電車票판매소에 포스터를 貼布하였고

⑤ 電車內에 최소한 2메이상의 포스터와 標語를 貼布하고 선전을 하였다.

⑥ 국민학교아동의 구강심사는 무려 약 24만명에 달하고 있다.

⑦ 其他고아원, 양로원에 대한 구강심사 및 診療도 실시할 計劃을 세우고 있다.

⑧ 週間中 일반인의 구강상담과 만 12세 미만 兒童에 무료진료 實施

⑨ 特히 6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국민학교 兒童에 限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⑩ 6월 27일에는 부산제일 健齒兒童을 선발 表彰式을 行하였으며

⑪ 會員中 주간행사에 功勞가 많은 會員에 대한 釜山市長의 표창장 授與도 있었다.

◆ 8월 9일 齒協釜山市支部는 금년도 6.9행사때 勞苦가 많았던 會員들을 위안하기 위하여 松島 <大松亭>에서 위료연을 성대히 베풀었는데 이에 앞서 회원친선의 排球시합도 있었다.

◆ 11월 29일 釜山市 齒科醫師會 제13회 定期總會는 하오 2시 釜山醫大 부속병원 臨床 강의실에서 개최되어 各部報告와 監查報告에 이어 다음과 같이 任員改選이 있었고 會則修正과 豫算案은 通過시키되 多少의 修正은 新執行부에 一任키로 했다.

△ 회장 金淳培, 부회장 白洪鎮, 金富哲 △ 총무이사 梁承冕, 총무위원 金亨亨 △ 재무이사 宋亨普, 재무위원 全治允 △ 보건이사 朴熙喆, 보건위원 鄭昭永 △ 심사이사 閔丙昇, 심사위원 吳仁植 △ 자계이사 姜德仁, 자계위원 朴震煥 △ 기획이사 柳邦燮, 기획위원 南基定 △ 섭의이사 金世尊, 섭의위원 金且根 △ 학술이사 劉基亨, 총무부장 韓泰熙, 학술부장 鄭玉均, 학술위원 吳文甲, 편집부장 金正默, 편집위원 具倉守, 文敏蓮, 섭의부장 李壽榮 △ 감사 金基煥, 申鍾胤, 金沅佑 고문 金昌圭, 李永泰, 金相讓

◆ 2월 大韓齒科醫師協會京畿道支部北部分會에서는 議政府市교육청과 美1軍團 齒務課와 共同으로 의정부 시내 각 국민학교 아동 8,500명에 대한 구강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健齒兒를 선발하는 한편 구강보건

에 관한 作文과 美術작품의 入選者도 발표하였다.

△ 健兒兒(5학년) 1등 양주교 장진기, 1등 가능교 남경희, 2등 의정부교 강희숙, 2등 양주교 김경숙 △ 作文(4학년) 1등 양주교 양제진, 2등 가능교 홍제진, 3등 호암교 박운경 △ 美術作品 1등 양주교 1학년 조백, 송양교 2학년 원영주, 양주교 3학년 민대식. 2등 가능교 1학년 나영우, 의정부교 2학년 조영순, 동 3학년 이정자. 3등 호암교 1학년 박찬수, 가능교 2학년 서은애, 양주교 3학년 반종호.

◆ 6월 14일 齒協京畿道支部의 仁川市, 水原市, 南部北部 各分會는 제19회 구강보건주간중 각 국민학교 兒童에 대하여 구강검사와 乳齒발치 및 무료진료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날 仁川市分會 19명의 會員들은 고아원 26개소의 院兒 2천 5백여명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 6월 18일 齒協京畿道支部에서는 代議員會를 개최하여 <齒協臨時總會 개최에 대한 決議事項>을 齒協 및 各市道支部長, 代議員, 所謂收拾委員등에 우송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64. 6. 18 本道代議員會議에서는 下記와 如한 理由로서 臨時總會개회를 反對하며 아울러 代議員도 파견하지 않기로 決議하였음.

① 所謂 自稱收拾委員會를 인정하지 않음 收拾委員會 구성의 필요성도 없거니와 必要性이 있었다 하여도 전국 各市道支部를 총망라한 委員會가 아니라 서울支部 일부會員의 集團에 불과하므로 本支部는 中央會의 定款에 의하여 中央會長이 召集하는 定期總會나 臨時總會가 아니면 代議員을 派遣할 수 없음.

② 本支部代議員會에서는 定期總會(10월 5일)를 3개월半의 日字를 앞두고 臨時總會를 개최하지 않으면 안될 何等의 緊迫 사태가 우리境界에 到來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事件이 추호도 없다고 봄

즉 臨時會의 議案을 檢討하건데 (가) 齒協任員 및 李某 서울支部長 自進辭退勸告의 件=대한치의보(1964. 3. 15)를 通해서도 周知하시고 계시겠지만 서울支部長辭退 문제는 서울支部에서 處理할 問題이며 懲戒대상자가 될 만한 者의 면목을 세워주기 위하여 齒協全任員도 自進辭退해야 한다는 所謂收拾委員들의 思考방식이야말로 寒心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음.

(나) 定款改正의 件=軍陣支部設置문제를 비롯하여 3개월半후이면 定期總會개회召集이 되니 暫時 더 참고 其時에 改正하기로 하면 될

(다) 資料需給에 관한 件=현재 순조롭게 輸入되어 配給中인데 이제와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건가

③ 서울民事法院에서 判決한 臨時總會 개최를 召集許可한 것은 臨總會 개최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

따라서 판결된 것이 아니라 中央會長이 定款을 위배하고 臨總召集을 保留한데 대한 判決로 생각함

本支部代議員一同도 그 定款 위배사실을 인정도 하고 또한 召集을 保留하게 된 理由도 理解를 하고 있음.

本支部代議員一同은 法院決定의 문제가 아니라 臨總 개최의 필요성과 中央會長의 召集이 없이는 如何한 會社에도 代議員이 참석하지 않을 것을 決議함.

④ 齒協任員一同은 앞으로 3개월사이라는 短時日이나 마 全體叱과외사의 권익을 위하여 公정히 분투노력하여 주길 바랍

⑤ 所謂 自稱收拾委員제위는 기왕에 칼집에서 펜칼이라고 하여 面目上 도루집어 넣기가 창피하다 하여 끝까지 臨總개회를 固執하면 齒界의 混亂만 조장하는 處事가 되고 齒協을 위시하여 各地方支部의 비용의 낭비와 各代議員의 時間 및 精力의 낭비만 招來케 하는 結果밖에 안되니 大를 위하는 마음으로 펜칼을 조용히 칼집에 집어 넣고 自進解體함이 현명한 處事이며 諸位의 心情 또한 우리가 충분히 理解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알려드리나이다.

大韓齒科醫師協會京畿道支部 代議員一同을 代表하여 代議員겸 支部長 林榮均

◆ 6월 9일 齒協忠清北道支部는 제19회 구강보건주간을 맞아 동주간행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① 6월 9일 충청북도과 本支部 公동으로 구강보건주간 紀念式을 거행하였음
- ② 道內 各 國民학교 兒童의 구강검사 및 진료를 실시함
- ③ 본주간중 방송좌담회를 개최함
- ④ 養老院, 고아원, 유치원의 무료진료
- ⑤ 各齒科에서 본주간중 어린이 무료진료
- ⑥ 無料구강보건相談
- ⑦ 中高等학교에 대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강연실시
- ⑧ 國民학교兒童의 懸賞作文모집(別途로 本支部에서 모집함)

⑨ 國民학교兒童에 대하여 <이따이 노래> 普及

⑩ 道內 各 극장에서 구강보건주간중 현수막을 계약함과 동시에 막간時間을 이용하여 구강보건에 대한 趣旨를 방송토록 함.

⑪ 淸州市內 齒科醫師는 本週間中 淸原郡教育長과 협조하여 淸原군내 國民학교를 순회진료함

⑫ 忠州市 및 各郡의 齒科醫師는 관내 會員이 상호단결하여 管轄 市郡교육장과 협조하여 管轄 市郡內의 國民학교를 순회 진료함.

⑬ 各會員이 報告한 健齒兒童을 表彰함(每枝當 秀, 優, 美 각 1명)

⑭ 淸州市內 各國民학교 兒童의 구강검사는 본 주간을 전후하여 실시하였음.

◆ 5월 齒協忠淸南道支部는 近間 서울 市支部를 中心한 代議員名義로 忠南支部 各 會員에게 書信을 보낸 바 있는 齒協臨時總會 개최建議에 대하여 本支部에서는 代議員會議를 소집하여 下記와 如히 決議하였다.

① 臨時總會개회를 建議한 收拾委員會가 제시한 案件에 本支部代議員은 贊同치 않는다.

② 5개월후이면 定期總會가 있으니 財政的 여유가 없는 齒協으로서 그 경비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③ 臨時總會를 열면 오히려 混亂을 招來한다.

◆ 6월 9일 齒協忠淸南道支部는 제19회 口腔保健週間을 맞아 구강보건啓蒙에 注力하였다.

① 新聞報道=大田日報와 中都日報를 통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선전 및 계몽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報道를 한바 있음.

② 라디오 放送=六·九 행사기간중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啓蒙선전을 위하여 講談式방송과 座談式방송을 하였으며 齒科醫師 가정담당하는 마이크探訪의 프로를 갖였음

講談式방송에는 10분간 南勇旭 학술이사가 담당했고 座談會에서는 放送局보도과장 金廣雨, 中都日報 편집국장, 李墩衡 지부장, 南勇旭 총무등이 담당하였으며 齒科醫師 가정담당에는 任胃懋元老의 家庭을 探訪케 하였다.

③ 口腔檢査實施=各 國民학교 및 中高等學校 學生에 대한 구강검사를 하였음.

④ 無料診療=六·九 행사기간중 구강보건에 대한 무료 진찰 및 15세미만 兒童

⑤ 健齒兒童表彰=各 國民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각 학년에서 1명씩 선발하고 이 중에서 5등까지 선발하여 市長 및 齒協名義로 表彰하였음

◆ 5월 11일 齒協全羅北道支部는 제 1차 齒科재료배급價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質疑公文이 있었다.

① 韓齒 제100호 2항(나)에 의한 3월분 1만 2천弗은 자유판례로 한다는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압

② 同 多項의 換算 255대 1로 改定되어 이에 따른 通關稅 高率에 의하여 500대 1로 査定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압

(가) 금반 1차배급품은 5월 4일 환율 改正 이전에 이미 수입한 것이며 通關稅 역시 高率은 부당함 (나) 500대 1의 査定는 너무 高率이니 査定의 理由 및 根據(다) 이상의 策定은 財政法의 抵觸여부.

◆ 6월 10일 齒協全羅北道支部에서는 제19회 구강보건주간을 맞아 이날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98육군병원의 齒科裝備를 갖춘 엠브란스 1대와 軍醫官 2명의 支援

을 얻어 尹麒炳支部長, 玄應武부지부장등 일행은 다음  
日程에 依하여 無齒醫郡 및 鳥嶼를 순회하면서 무료진  
료를 실시하였다.

△ 6월 16일 =부안군산내면(어업조합, 어촌면민) △  
11일 =부안군 금소면(국교생, 어업조합, 일반면민) 12  
~13일 =부안군위도(국교생, 어업조합, 일반도민) △  
14일 =부안군 줄포(국교생, 일반면민)

◆ 6월 齒協全羅北道支部는 齒協과 所謂收拾委員會에  
다음과 같은 公文을 傳達했다.

△ 臨時總會不參=本支部는 아래 事項의 理由로서,  
臨時總會에 참석치 아니하겠음

① 農繁期에 地方의 막대한 豫算을 낭비하여 참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② 臨時總會 議案이 긴급사항이 아님 辭退勸告해도  
이행치 아니할 積의 對策등이 稀薄함

③ 순진한 서울會員들의 紛爭을 法廷투쟁으로 인하여  
地方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不當함 豫算을 消費하  
면서 참석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함.

④ 臨時總會 議案은 10월 5일의 定期總會까지 保留할  
수 있는 案件임

⑤ 서울會員은 경비출처가 없으나 各地方은 臨時總會  
에 참석키 위하여 豫算支出이 곤란하므로 앞으로 臨時  
總會召集을 신중히 考慮하여 緊急案件이 아니면 召集하  
지 아니할 것을 要望함.

◆ 6월 9일 齒協全羅南道支部는 제19회 구강보건주간  
을 맞이하여 光州市, 木浦市 兩分會에서 紀念式을 성대  
히 거행하는 동시에 (가) 健齒母子 표창 (나) 健齒兒표  
창 (다) 구강보건 <글짓기> 入選표창 (라) 各新聞社와  
담회 및 방송과담회와 강연, 이번 週間에 光州시에 각  
국민학교에서 無料拔牙數 3만 8천개.

丁達秀理事長談=先進國의 구강보건계 思潮를 살펴보  
면 이미 啓蒙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인 施策을 추진 실천  
중인데 우리는 도체제 인제까지 국가적인 財政협조 없  
이 이대로 회생적 奉仕만 하여야 되는지 失望할 때가  
 많다. 물론 무료봉사 및 무료순회 진료한다는 것은 聖  
스러운 우리의 本來의 과업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지난  
날 會員들의 노고를 불친대 인제까지 行事를 국가적인  
협조없이 지속할 수 있을가. 여러 會員들의 의견을 들  
어 불대 앞으로는 효과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口  
腔保健管理費를 政府로부터 策定받도록 추진할 것을  
痛感한다.

◆ 5월 16일 釜山, 大邱兩齒科醫師會 親善庭球, 卓球  
競技大會는 大邱 醫大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同大會는  
年例行事로 釜山, 大邱에서 開催地를 바꾸어 가면서 열  
리는데 이자리에 참석한 齒協 金溶瑯 회장은 祝辭를 통

하여 <이와같은 運動競技를 통해 齒科醫師들이 보다親  
함을 찾고 和氣있는 분위기 속에 同化되어 보고 머리를  
식혀 보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을 찾게 되었다>고 말  
하였다.

◆ 4월 22일 齒協慶尙南道支部의 臨時總會反對공문

① 서울支部代議員들이 齒協任員 및 李某 서울支部長의  
自進勇退를 바란다는 印刷物이 本支部各會員앞으로 온  
내용을 분석 판단한 결과 本支部任員會에서 이를 적극  
反對함은 勿論, 但李某서울支部長의 除名 및 處罰문제  
에 限해서는 恒時 이를 積極추원하기로 決議하였음 ②  
臨時總會개최는 서울代議員과 全國各支部의 要請없이  
齒協이 單獨承認할 경우는 慶南支部는 모든 行爲에 있  
어서도 同調하지 않겠음.

한편 慶南支部 高相穆會員은 앞서 臨時總會 要請에  
捺印한바 있었으나 4월 22일字로 同要請撤回願과 解明  
書를 添送해 왔다.

◆ 5월 3일 齒協慶尙南道支部는 馬山수성동 所在 길  
좌석치과의원에서 제 2회 分會長會議 및 代議員會를 개  
최하여 다음事項을 討議決定하였다.

① 1964년 10월 齒協定期總會 改選代議員선출의 件=  
새로 選出된 代議員 南貞祐, 金和錫, 金尙文, 李鍾守,  
朴然洙, 金一, 金鍾海, 鄭龍官.

② 慶南齒科醫學會 圖書請求의 件=현재 釜山市支部  
에서 관리중인 慶南齒科醫學會 圖書 38卷을 全部引受키  
로 可決.

③ 慶南支部會誌장간 準備의 件=會誌名 <慶南齒醫>  
誌 發行人 南貞祐, 會基金이 없으므로 贊助金에 의하여  
7월에 發刊키로 決議함.

④ 齒協臨時總會開催에 關한 件=서울支部長 李某懲  
戒를 위한 臨時總會 可及의 조속히 開催할 것을 提議하나  
其他의 다른 案件을 위한 臨時總會는 此를 爲대 反對한다

⑤ 5월 申告에 關한 件=會費徵收를 分會長이 責任지  
고 申告書를 접수키로 合意.

⑥ 昌寧分會장립총회 認准의 件=承認키로 可決

이날 參席者名單=南貞祐 지부장, 金尙文, 李丙道南  
부지부장, 金和錫 총무부장, 朴壽敬 馬山분회장, 李鍾  
守 蔚山분회장, 鄭龍官 金海분회장, 金一晉州분회장,  
金鍾海 密陽분회장, 林昌鎔 鎭海분회장, 李翰喆, 朴然  
洙, 高相穆, 鄭風俊 각이사.

◆ 6월 齒協江原道支部로부터 所謂收拾委員會가 召集  
하는 6월 20일의 臨時總會에 代議員을 파견치 않을 것  
을 決議하였다고 齒協에 通告하였다.

◆ 2월 25일 大韓軍陣齒科學會會長에 육본의무감실 齒  
務課長으로 新任한바 李基完 대령이 就任하였다고 同學  
會공문으로 밝혀졌다. 前學會長 崔亨坤 대령은 轉役후  
大邱에서 開業준비중이다.

◆ 4월 13일 1957년도 이후 서울齒大졸업생으로서 軍  
服務(軍醫官)의 기회를 얻지 못한 후배들 100여명을 위  
하여 육군齒務당국에서 꾸준히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오던중 금년과 내년에 걸쳐 兵役미필자 全員을 齒科軍  
醫官으로 흡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이날 齒科  
軍醫官후보생 64명이 육군군의 학교에 入校하였다.